



중국, 고성능 고품질 접착제 시장 호조 포장 및 상표 부문 12.2% 차지해

최근 중국은 건축, 목재가공, 포장 및 신발제조 등 산업의 지속 발전과 더불어 접착제 수요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접착제 시장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수준이 낮은 일반제품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다. 반면 고성능, 고품질의 접착제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접착제공업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국 접착제시장은 연평균 11.8%에 달하는 성장을 거듭해 2010년에는 5백70억 위안의 시장규

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규모 면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11.5%에 달해 2010년에는 중국 접착제 생산량이 약 7백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2010년에 이르러 중국은 세계 최대 접착제 생산대국, 세계 제3위의 접착제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 접착제시장 종류별 소비동향 추세를 보면 2010년 중국 접착제 총 생산량 중 목재가공에 사용되는 접착제 생산량이 333만 톤에 달해 전체의 45.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건자재, 페인트(200만톤, 27.4%) ▷포장, 상표(89만톤, 12.2%) ▷신발, 피혁(43만톤, 5.9%) ▷교통운수(24만톤, 3.3%) ▷종이 가공, 출판물 장정(15만톤, 2.1%) ▷기계, 전기, 계측기 등 조립(12.7만톤, 1.7%) ▷기타(8만톤, 1.1%) ▷민

용(5.3만톤, 0.7%)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저가 접착제시장 포화로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고성능, 고품질 접착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급 접착제시장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접착제공업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국 내 고성능, 고품질 접착제 특히 기계, 전자, 자동차, 건축, 의료위생 및 항공분야에 사용되는 일부 특수 접착제시장은 20% 이상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접착제공업협회가 작성한 '중국합성접착제 2006년~2010년간 발전계획건의서'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5년간 친환경, 에너지 절약, 고성능 접착제를 중점 발전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망 품목으로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낮은 목재, 합판가공 접착제, Hot Melt 및 기타 무용제형 접착제, PU 접착제, 유기 실리콘 접착제, 에폭시수지 접착제, 자동차용 PVC 접착제 등이 꼽힌다.

한편 중국 접착제시장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 진출 해외 투자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중국 내 진출한 해외 접착제 업체 중 대표적인 업체로는 Henkel社, Cytec社, Loctec社 등이 꼽힌다. 중국접착제공업협회에 따르면 해외 투자기업에서 생산한 접착제가 전국 접착제시장에서 차지하는 판매 비중은 현재의 40%에서 2010년에는 45%~5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 산업용 접착제 유통경로를 보면 접착제 제조업체가 직접 공장에 납품을 하거나 또는 산하에 보유하고 있는 판매 대리상을 통해 수요

처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 내 접착제 제조업체와 직접 접촉한 결과 주로 공장도 가격을 제시했다.

일본 SHOWA社가 단독 투자해 설립한 上海昭和高分子有限公司(www.sshp.com.cn)가 제조하고 있는 EVA 에멀션 접착제 공장도 가격은 매 kg당 15~20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日, 신선우유 인증 실시 연간 20억엔 매출 기대

일본 농업신문에 의하면 일본내 농협계통 유업체들의 단체인 전국농협유업협회는 착유후 24시간이내 출하하는 신선도를 인증한 우유를 개발, 제품을 차별화 판매촉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6시간 이내에 집유 할 수 있는 현지 낙농가의 원유를 100%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선우유는 현재 60여농가가 회원으로 이 중 10여명은 직접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저녁에 착유하는 우유가 유지방이 풍부하고 맛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저녁에 착유한 우유만 가공처리하여 24시간이내 출하하고 있는데, 1리터에 2백28엔의 가격으로 하루에 3천6백여개를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농협유업협회에서는 신선하고 안심할수 있는 신선우유를 확대하여 20여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20억엔의 매출액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英, 세계최초 '플라스틱 반도체' 공장 등장 전자산업 대변화 기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설립된다.

영국 회사 '플라스틱 로직'은 실리콘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공장을 독일 동부 드레스덴에 세우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플라스틱 로직은 미국의 벤처 캐피탈 회사 '오크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와 '튜더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으로부터 플라스틱 반도체 공장 건설 자금 1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이미 초기 투자자금으로 5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캐번디시 실험실'이 개발한 플라스틱 반도체 기술은 전자회로 가격을 지금보다 최고 90% 떨어뜨릴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회사 측은 플라스틱 반도체가 포장업계의 라벨 제조에 널리 쓰이는 잉크젯 프린팅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로직은 내년 말까지 종업원 1백40명의 플라스틱 반도체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잉글랜드 남동부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플라스틱 로직은 종업원 90명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됐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칩 생산업체 인텔과 세계 최대 화학업체 바스프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플라스틱 로직의 이사를 맡고 있는 케임브리지 출신 사업가이자 금융가 허먼 하우스는 플라스틱 반도체가 전 세계 전자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반도체가 '획기적으로 저렴한' 전자 시대를 열 것이라고 "일례로 정보회로를 내장한 옷을 입으면 옷 속의 정보회로가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로직은 드레스덴의 플라스틱 반도체 공장에서 우선 A4용지 크기의 플라스틱 판을 만들고 이를 재료로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신축력이 있는 신용카드 크기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생산할 예정이다.

중국, Gansu Xinchuan, PVC 설비 가동 PP 생산능력 2010년 10,600천톤 확대 전망

중국 Gansu Xinchuan Chemical은 Gansu 省 Jinchang 지역에 200백만톤 PVC 설비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동설비의 총 투자규모는 25.7 백만달러로 200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설비는 동지역의 Jinchuan의 2백만톤 가성소다 설비로부터 원료인 Chlorine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또한 CPPIA(China Plastics Processing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중국의 PP 생산능력은 2010년까지 1만6백천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기간 수요는 2006~2010년 연평균 6~8.6%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참고로 2006년 1~11월 중국 PP 수급은 생산 5백24만톤, 수요는 7백80만톤으로 2백60만톤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중국의 PP 자급률은 PP 설비의 신증설 완공이 집중된 2009년 이후 대폭 증가할 전망에 따라, 수입은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日, 전자태그 활용 범위 확대
물류서비스 개시 예정

일본에서 다양한 분야에 전자태그(RFID)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히타치제작소가 생산현장의 배선관리 시스템에 RFID를 활용하는 실증실험에 착수했고 NTT컴웨어는 6월부터 중견 및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관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RFID의 활용은 제품 및 물류관리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의 등·하교 확인에도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로의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다. 히타치제작소는 공장 내 배선 케이블과 케이블을 접속하는 기기에 RFID를 설치했다. 전용 리더로 2개의 RFID 정보를 동시에 읽어낼 수 있다. 입력한 설계정보와 조회해 케이블이 정상으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알아낸다.

이 회사는 자사 개발의 초소형 RFID '뮤'를 활용해 가는 배선이나 접속부에도 RFID를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자사에서 관리하는 발전설비의 전기 케이블에 이 시스템을 도입, 실증실험에 착수했다.

NTT컴웨어는 제품의 생산 및 물류이력을 관리하는 RFID 시스템으로 중견·중소 유통업체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RFID를 사용하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대행하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도 제공할 계획이다. RFID는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아 주로 대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NTT컴웨어의

서비스로 고객사들의 초기 투자는 현 2천만엔에서 5백만엔 정도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日,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 계획 추진
5대 행동계획 제정

네파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2015년 동남아시아각국연합(ASEAN) 통합을 앞두고 국제물류체제 구축을 위해 RFID 도입 등 5대 행동계획을 제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산성의 5대 행동계획은 △아세안 광역 물류망의 정비 △물류 및 수출입 통관수속 관련 인재 육성 △물류 자재 이용 △아세안 통합에 대비한 수출입 통관 수속 전자화 △일본 수출입 제도 개혁 및 시스템·인프라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광역 물류망 정비를 위해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태국·라오스·베트남, 태국·필리핀 등 일 기업 수요가 높은 아세안 6대 물류 거점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물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자국의 물류 자격 프로그램을 수출해 아세안 지역의 물류 관련 인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물류 자재 이용은 RFID의 적극 도입과 일 물류 자재에 관한 노하우를 수출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꾀한다. 올해에만 RFID와 GPS를 활용한 실증실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입 통관 수속의 전자화에는 수출 통관의 전자화 및 역내 정보공유하는 접속체제를 통해 수출입 통관 수속 합리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